

내 어린시절에 2.

□글 | 이재성 □그림 | 황성호

“축구 시합을 해서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 모두 내 부하다.”

골목대장 영철이는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부하, 지금이 뭐 조선시대냐?” 머리를 바짝 깎은 수동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좋아, 대신 우리가 이기면, 니가 우리 동네 골목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영철이의 눈을 쏘아 보면서 말했다.

“시합은 벽을 쌓아서 1골을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영철이는 우유를 마시고 팔로 입을 훔치면서 말했다.

“골은 나와 네가 넣는다.”

“좋다.” 나도 큰 소리로 대답했다.

“벽은 수동이, 호철이, 명수, 인호가 쌓는다.”

“형아야, 나 무섭다.” 동생 명수가 울상이 되어서 말했다.

“명수야, 무서우면, 윗도리로 얼굴을 가려.” 옆에 있던 똥똥이 호철이가 말했다.

“야, 벽 다 쌓았지, 내가 먼저 찬다.”

영철이가 큰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우유를 꿀꺽꿀꺽 마셨다.

“제는 매일 저렇게 우유를 마시더라. 제네 아빠 우유장사 하나봐.” 인호가 우유를 마시는 영철이를 보면서 말했다.

“간다. 각오해라.” 영철이가 소리치며 오른쪽 발로 공을 힘차게 찼다.

공은 똥똥한 호철이 앞에서 뱅글뱅글 돌더니, 힘없이 툭 떨어져 버렸다.

“야호” 벽을 쌓은 호철이와 인호, 수동이 소리를 질렀다. 윗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명수도 뒤늦게 소리를 질렀다.

골이 들어가지 않은 영철이는 씩씩되며 나에게 공을 건네주었다.

벽을 쌓은 아이들은 왠지 영철이 때보다 느슨하게 벽을 쌓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이들 네 명을 뚫고 골을 집어넣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영철이는 저만치 떨어져서 팔짱을 낀채 나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 보고 있었다.

‘골을 넣어야 한다.’

나는 벽 정면을 낮게 돌파하는 골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 중 누군가를 쓰러트리거나 공을 피하려고 하는 아이들 사이로 공을 넣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아주 낮지 않게 공을 힘차게 찼다.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동생 명수가 다리를 잡고 쓰러졌다.

나는 그 사이에 골대를 향해 굴러가는 공을 힘차게 골문을 향해 찼다.

‘골인!’

아이들은 서로 얼싸 안으며 좋아했다.



성화
2006